

◎ 世界經濟 **惡材尙存속 완만한 恢復勢**

沈 承 鎮

〈慶北大學校教授·經博〉

93년, 향후 국제 경제구도
형성의 모색기

동서냉전의 기억이 점차 역사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경제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냉전시대의 자본주의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 구도가 자본주의대 자본주의의 구도로 변형되고 있다. 이른바 미국식 자본주의, 일본식 자본주의, 유럽식 자본주의가 서로의 우열을 가리는 경제전쟁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본주의 속의 패권다툼으로 나타나는 경제전쟁은 각국, 각 지역 사이의 경제마찰, 대립, 부조화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즉 각국, 각 지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차별주의, 배타적 단결주의, 보호주의로 치달지 않으면 안되는 역사적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온 GATT, IMF 체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UR 협상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 하고 있으나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못찾은 채 지연되어 오고 있다.

GATT, IMF 체제하에서의 국제주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약화되어 오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SUPER-GATT 체제로 불리우고 있듯이 양국간 쌍무협정과 다자간 협상을 동시병행적으로 시도하려는 움직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GATT-PLUS 체제로 불리우는 차별주의 방식을 도입한 국제주의의 움직임도 동경 라운드 이래로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주의의 기능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주의와 정반대 되는 개념의 현상인 지역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최근 국제경제에서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동서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주의, 지역주의 등 세계경제에 관한 페러다임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과도기, 모색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 모색기를 원만하게 경과하여 21세기의 국제 경제질서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일대 혼란을 치르면서 경제전쟁의 도가 심각해져 열병을 앓고 Chaos(혼란) 시대를 지나 21세기 국제 경제질서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턱이 바로 93년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지도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못한 가운데 향후 21세기의 국제 경제질서구축과 패권쟁탈을 위한 본격적인 모색기로 들어서는 것이 93년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상당히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완만한 회복세, 남고북저의 경제성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의하면 92년과 93년의 예상경제성장률은 대폭 하향조정된 가운데 세계경제가 아주 미약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세계경제는 92년말을 고비로 해서 점차 경기 호조세로 전환되어 완만한 경기회복세의 93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기예측 배경으로는 우선 선진국들의 물가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92, 93년에 지속적인 물가안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경제의 확대기조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실업률이 높게 추이되고 있어 이것이 세계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전체 평균으로 91년에 7.3%의 실업률이 92년에는 8.1%로 높아졌고 다시 93년에는 8.3%로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영국, 독일, 이태리,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10%를 넘는 실업률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독일의 재정적자 등도 세계경제회복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한편 IMF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예측에 의하면 91년의 마이너스 0.3% 성장에서 벗어나 92년에는 1.1%의 회복세를 보였고 93년에는 9.1%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2.9%의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6.2%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92년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평균경제성장률은 91년의 5.8%보다 높은 7.1%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93년에는 7.6%로 더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경제의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역내상호의존 심화에 따른 교역의 증대와 각국의 경제개혁의지 등에 기인하며 특히 중국 경제의 예외적인 강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 자원가격의 안정적 보합세 유지

이렇듯 세계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자원시장도 다소 침체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국제 원유시장의 경우 주요 소비국인 선진공업국에서 수요정체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공급증대 여지는 많아 92년 4·4분기 WTI(서부텍사스 중질유)의 배럴당 22달러 정도의 수준이 93년에는 강보합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2년 이후 OPEC의 내부결속도 저하 및 자원생산자 카르텔로서의 조건 등이 점차 성립되지 못하는 가운데 카르텔로서의 독점력, 시장지배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배럴당 17~20달러의 안정적인 유가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EC의 탄소세(일명 환경

세계 경제성장률

<表-1>

	91	92			93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전 세계	-0.3	1.1	—	1.1	3.1	—	3.2
선진국	0.8	1.7	1.8	2.0	2.9	3.0	3.1
미국	-1.2	1.9	2.1	2.1	3.1	3.7	3.1
일본	4.4	2.0	1.6	2.6	3.8	3.0	3.6
독일	0.9	1.8	1.3	2.0	2.6	3.3	3.3
개도국	3.1	6.2	—	4.3	6.2	—	4.8

註 : IMF,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92년 9).
 OECD, OECD 경제전망 보고서(92년 6).
 WEFA,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92년 7).

세계 경제전망

<表-2>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91	92(추)	93(예)	91	92(추)	93(예)
		미 국	6.8	7.5	7.8	4.2	3.0
일 본	2.2	2.1	2.4	3.3	2.0	2.0	
독 일	7.7	9.9	10.8	3.5	3.9	3.7	
프 랑 스	9.4	10.0	9.8	3.1	3.0	3.0	
영 국	8.1	9.8	10.7	5.8	4.0	3.3	
이 태 리	10.9	11.3	11.5	6.5	5.2	4.3	
캐 나 다	10.3	11.3	11.2	5.6	1.5	2.3	
호 주	9.6	10.8	10.5	3.2	1.5	2.5	
OECD計	7.3	8.1	8.3	5.7	4.6	4.2	

세계의 경상수지

(單位: 10억 달러)

		91	92(추)	93(예)
미	국	-3.7	-44.7	-36.8
일	본	72.9	110.9	98.2
(구)	서 독	-20.3	-24.9	-12.8
프	랑 스	-7.0	-21.0	-12.0
영	국	-9.6	-19.5	-20.1
이	태 리	-20.6	-22.0	-19.0
캐	나 다	-24.8	-23.9	-21.7
호	주	-9.9	-8.8	-9.2
O E C D 計		-22.5	-38.7	-14.2
비 산 유 개 도 국		-34.3	-54.8	-73.5
중 국		13.3	7.5	6.0
동북·동남아시아		-5.5	-4.2	-3.9

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OPEC의 내부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 92년 3·4분기에 배럴당 약 3달러의 원유가 인상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라크의 석유시장에로의 복귀 가능성, 구소련의 산유능력제고 등이 가시화되면서 안정적 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석유 이외의 자원에 있어서도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원자재가격은 세계적인 수요정체에 따른 재고 증대 때문에 상당기간 하강 내지는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의 경제현황과 93년 경제예측에 관하여 일본, 미국, 유럽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조정국면 일단락—일본경제

일본의 경기후퇴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92년 2·4분기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비 마이너스 6.1%로 되어 제1차 석유위기 이래로 최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부문에서도 대형소매점의 매상고, 노선트럭의 수송톤수, 광고거래, 정보서비스 매상고 등의 지표가 모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감이 강해지

고 있다.

고용사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기업에서는 93년 봄에 졸업하는 학생채용수가 억제되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기업에서 일시 귀향 휴가실시도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크로지표에서는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이 약 4년만에 1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실제로 취업자수도 4월 이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잔업시간도 크게 줄어들고 있고 보너스 지급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사정의 변화는 가계소득과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에 종합경제대책을 결정, 발표한 바 있다. 사업규모 총액은 10.7조엔으로 되어 있다.

직접적인 공공투자의 추가는 약 6.2조엔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1년간의 실질GNP를 약 1.5~1.6% 올릴 것으로 시산되고 있다. 공공투자의 직접 추가분 이외에 경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직접적인 수요 추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아무튼 일본경제는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있고 조정과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황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91년말부터 개인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불황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92년 성장률은 2.5%로 이는 7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서서히 증대되어 약 3.5%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의 조정과정은 93년 초반에 일단 종료될 것이다.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금리저하효과가 침투되어 올 것이란 것이 그 이유이다. 단 93년의 경기회복 속도는 개인소비·설비투자가 증대되지 못하고 또한 공공투자확대 속도가 슬로다운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성장세인 3.5%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비회복은 팔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소득증가율은 93년에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나 기업의 고용태도가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증가율은 89·90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주택투자는 91년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벗어나 92, 93년에는 완만한 확대기조로 이어질 것이다. 주택착공호수는, 주택론(loon)에 대한 금리인하 효과, 왕성한 증·개축수요에 힘입어 늘어날 것이다. 분양주택은 92년에는 증고맨션가격의 저하 등에 따른 수요의 정체 등으로 증대되지 못하였으나 93년에는 맨션공급이 증대되면서 맨션의 가격도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설비투자의 회복도 그 강도는 약하다. 93년에는 금리저하, 기업수익의 회복에 따른 투자채산개선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나 저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일본의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서서히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나 구미제국들의 수입제한 강화, 현지 생산확대 등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는 완만한 것이 될 것이다. 수입도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율은 높아지나 역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상수지흑자는 92년에 과거 최고 수준인 1,100억 달러 전후까지 이르렀으며 93년에도 약 1,2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화 환율은 92년말부터 93년초에 걸쳐서 미국의 경기회복이 일본의 경기회복에 선행되어 가고 일본과 미국 사이의 금리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 일본의 경상수지흑자가 고수준으로 추이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엔화약세의 기운도 보이나 전체적으로 엔화 강세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재편과정에 있는 미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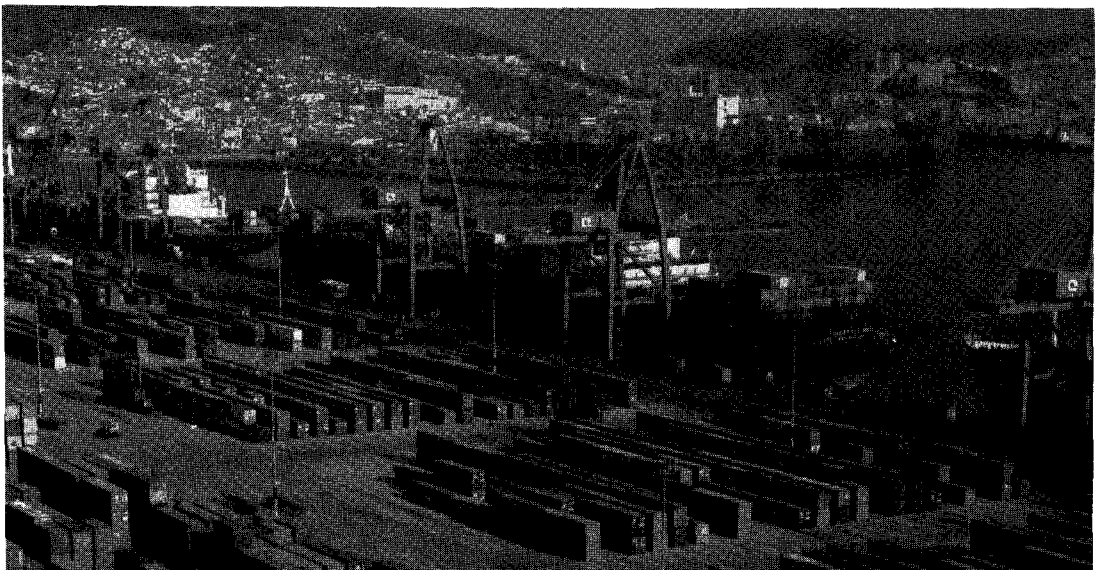
미국경제는 이미 경기순환의 저점에서 탈피하기는 했어도 기업, 은행 등을 둘러싼 경제 재편압력 때문에 당분간 저성장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기업부문에서는 재무면에서 탈부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과 함께 경영면에서도 고용억제, 재고관리에 의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구재 산업에서는 과거와 같은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감소가 아니라 89년 1월 이후 일관해서 고용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수익력을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여 개인 소비, 주택투자가 증대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부문에서의 재편 움직임도 주목되는 것이다. 수익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공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시키고 있고 국채의 구입을 급증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비율을 급속히 개선시켜 나가



고 있는데 이는 경기전망의 불투명함에 따라 당국의 규제가 엄격하게 될 것이라는 배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경제는 국제무역에 기대를 가질 수도 없는 바 이는 선진각국의 경기가 93년에 정체에서 완만히 벗어나려 하고 있는 정도이며 지금까지 주요 수출상대국이었던 멕시코도 경기감속이 괄목할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93년 후반기의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경기의 저성장은 9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2년 하반기에는 전기대비 연율 1.7%, 93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9%, 2.0%로 예측되어 가속감이 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기업의 고용억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상승률 저하, 노동생산성 상승이 동시에 달성되어 2·4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전년동기대비 겨우 0.8%의 증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주요 소비자물가는 93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0%까지 저하하고 그 이후도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은행을 둘러싼 재편 흐름은 금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대출이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금리저하에 따른 경기부양이 한계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93년에는 재정적자 삭감이라고 하는 정부부문에서의 재편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경기에 대하여 약간 자극적인 정책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유럽경제—불안정 정세의 본격화

독일에서는 93년을 바라보면서 구서독경제의 후퇴색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동독의 본격적인 경제회복도 곤란한 상태에 있다. 구서독에서는 통일에 따른 노동코스트의 상승과 함께 고용조정이 93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93년초에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됨으로써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수출에 관해서는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재수출이 유럽경제의 정체와 그에 따른 설비투자의 저미, 마르크화의 강세 등으로 증가가 힘들게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실질GNP는 92년에 1.2%, 93

년에 0.3%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크게 감속되고 있다.

구동독에서는 특히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 노동비용의 증대와 함께 수출보험의 적용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93년에 증가세로 반전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있다. 실업자수에 관해서는 노동코스트 상승에 따른 고용조정과 함께 구서독에서의 노동력흡수가 더 이상 곤란하게 되면서 실업은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연방은행은 92년 9월 금리를 0.25% 인하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EMS(유럽통화제도)의 긴장완화란 명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독일 국내적으로도 재정적자·고임금에 따른 고금리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정부는 재정적자삭감을 위하여 증세, 구동독의 임금억제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현정권에 의한 실시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92~93년에 걸쳐서 약 2,000억 마르크의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영국경제에서는 가계·기업채무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파운드화의 ERM(유럽환율 조정체제)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탈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대출금리의 1% 인하를 결정하는 등 종래의 통화안정책으로부터 경기중심시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단지 금융·외환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인플레이 기대심리의 고조, 정책기반의 약체화가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내수의 회복이 과제로 되고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고용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고용창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에 관해서는 경기호전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서서히 완만한 회복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3년 봄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거에서 안정정권의 탄생이 어렵게 보이는 가운데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시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